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후폭풍'

공정·객관성 의문 제기 이어지며 출발부터 '뺨격' 김장영 교육의원 사퇴 표명... "특위 중립성 의구심" 김태석 의장 "절차따라 선입... 구성 의도한 것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뺨격거리고 있다. 지난 15일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김장영 교육의원이 사퇴를 표명하면서다.

더욱이 특위 구성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의회 내부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특위 활동을 둘러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19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특위원회를 사퇴하며'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특위 구성 방식에 있어 7명 이내로 하되 찬반 단체가 동등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단서조항이 명시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성있게 특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향후 활동과정의 중립성에 관한 의구심이 들고 더 나아가 도민 신뢰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그간 본 의원을 포함해 찬성과 반대에 대해 각각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원들은 그간의 의견을 개진했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특위 위원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성향에 따른 구성원 인원을 고려했을 때 특위에서의 제 활동과 역할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은 명약관화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육의원은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과 내·외부의 갈등은 물론 정당 내부에서의 입장 차이도 명확한 상황에서 도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이날 제37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앞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 위원 한 분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특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위 위원은 상임위원에게 선정을 부탁드렸고,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천된 1인을 절차에 따라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간적 제약으로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아 위원장에게 의견을 묻지 못하고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한 하나의 위원회가 있다는 점 외에 특위 구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여지는 없었다"며 "특위 구성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것은 지금의 의회 구성의 한계에 의한 것이지 의도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특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갖는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우여곡절도 많았던 만큼 위원회 활동에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지만, 도민 사회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제2공항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본다"며 "성급함으로 인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가능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한라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19일 오전 한라산 뒷세오름(해발 1700m) 부근 구상나무에 상고대와 함께 하얀 눈이 내려 있으며 겨울왕국으로 변신했다. 등반객들이 설국(雪國)으로 변한 한라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제 본회의 의결... 6단계 제도개선 입법절차 마무리 중앙행정관한 이양·청정자연환경 관리 법제화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이 시행단계에 접어들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는 마무리됐다.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어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약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 등 5건의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이 최종 확정됐다.

법안 내용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 권한·사무가 남아있고, 남아 있는 과제는 사무기구 중심으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할 때에는 투자금액·투자 이행기간·고용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사항도 의결됐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반영했다.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를 '자치와 분권'의 모형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4·3과 UN 그리고 미국"  
21~22일 제9회 제주4·3평화포럼 '미주 4·3관련 단체 결성' 세션도

제9회 제주4·3평화포럼이 21~22일 제주 KAL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주4·3과 UN, 그리고 미국'을 주제로 열린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8회 포럼 그리고 올해 미국 UN본부에서 열렸던 국제 인권 심포지엄의 연장선상에서 제주4·3과 UN,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내·외 각계 전문가 18명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 첫째 날 오후 5시에는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의 '열정과 냉정 사이: 제주4·3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있고, 오후 6시30분부터 개회식이 열린다.

포럼 둘째 날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오전 10시30분부터 '유엔과 세계질서'를 주제로 박홍순 교수(선문대학교), 스티븐 리 교수(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가 각각 발표한다. 둘째 날 제2세션은 오후 1시부터 'UN과 미국, 그리고 제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인 제임스 퍼슨, 센트럴 미시간대 정치철학과 교수인 호프 메이, 연세대학교 박명림, 조선대학교 기광서 교수의 발표를 통해 제주4·3과 미국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마지막 제3세션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미주4·3단체 결성'을 꿈꾸며'를 주제로 열린다. 미주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강준화 대표가 미국에서의 5·18기념사업의 전개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고, 재미제주도민회 이한진 대표와 재미 칼럼니스트 양영준씨가 미주4·3단체 결성에 대한 토론을 가진다.

4·3과 국제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열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진정한 4·3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진실과 화해, 평화로 나아가는 4·3 진상규명의 또 다른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4면... 제주해상서 어선화재 1명 사망·11명 실종

###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 전 국민
- 7개 품목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자
- \* 단, 품목별 대상 등급 상이

### 지원 기간

- 구매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6일 ~ 2020년 1월 15일

### 환급 금액

구매가격[부가세포함 결제가격]의 10%

\* 개인별 최대 20만원 이내

### 구매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

\*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 환급 품목

구분	품목	등급	최근 기준시행일
1	냉장고	1	'18.4.1
2	김치냉장고	1	'17.7.1
3	에어컨	벽걸이 그 외	1~3
4	냉온수기	저장식 직수식	1
5	전기밥솥		1
6	공기청정기		1
7	제습기		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 모델명과 제조번호(시리얼번호, 일련번호)

모델명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예) A-B713C

제조번호

예) RFACPALGC09943A

(ex : 냉장고 모델명 및 제조번호 부착위치)

### 신청 방법

- 1 홈페이지 접속  
http://rebate.energy.or.kr에 접속 후, 휴대폰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유 동의
- 2 구매 내역 입력  
① 구매처, 품목, 모델명(효율 라벨 상), 구매일자, 구매금액  
② 증빙 자료 업로드 : 거래명세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 3 구매한 제품 정보 입력  
① 제조번호(일련번호, 시리얼번호) 입력  
② 증빙 자료 업로드 : 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 4 계좌 번호 입력  
본인 계좌번호 입력 및 계좌 유효성 확인  
\* 환급신청자와 예금주 동일
- 5 환급 완료  
확인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환급  
\*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전 국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10%환급 받으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기간 동안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신청 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개인별 20만원 이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